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jsung.yang@samsung.com

김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한성민 Research Associate  
sungmin0108.ha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Week Ahead: 7월 첫째 주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글로벌 제조업 완만한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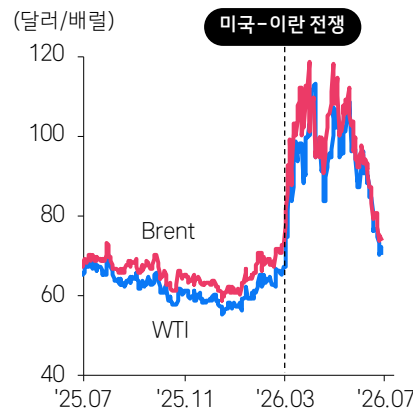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면서, 국제 유가 전쟁 전으로 복귀. 그에 따라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난으로 위축되었던 IT외 글로벌 제조업 정상 궤도 복귀 전망
- 성장 회복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높아지나, 유가 하락과 중국 내수 부진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 한편, 메모리 가격 상승의 소비자 물가 영향은 제한적

### 국제 유가 전쟁 전으로 복귀, 글로벌 제조업도 정상 궤적으로 회복 중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는 2월말 전쟁 직전인 배럴당 70달러 수준(WTI 기준)으로 하락했다. 60일로 예정된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겠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상호 확증적 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균형에 있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수준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난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사는 글로벌 경제가 시차를 두고 전쟁 이전의 성장 궤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판단한다. 즉, 글로벌 시 투자는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로 부진했던 소비와 투자가 개선되며 자동차, 소비재 등의 회복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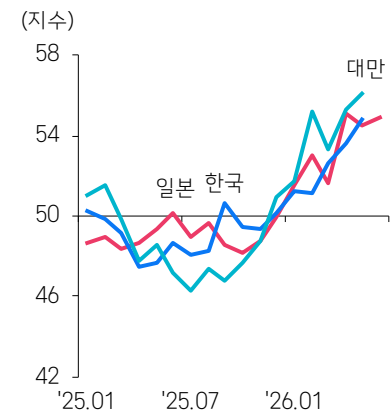
4개월 남짓 이어진 해협 봉쇄의 영향은 균등하지 않았다. 고유가의 혜택은 중동 지역 외의 산유국에게 집중된 반면, 피해는 석유수입국 그 중에서도 정제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번 고유가 국면에서 독특한 점은 글로벌 시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국은 석유 수입국이더라도 경제 상황이 양호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4개월 동안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3.6%를 기록했는데, 이는 반도체 수출 급증과 대규모의 정제시설 보유 덕분이었다. 반면, 정제시설이 미비하거나 축소된 유럽, 동남아시아 등은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 PMI는 3월 이후에도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며 확장세를 지속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은 전쟁 발발 이후 둔화세가 뚜렷했다.

### 국제 유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전쟁에도 한국 등의 제조업 PMI는 상승



자료: S&P Global, 삼성증권

###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고유가가 진정되면서 6월 들어서는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PMI의 수출주문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올해 내내 전년 대비 (-)를 기록했던 한국의 자동차 수출도 5월 중순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6월 들어서는 (+)로 전환되었다. 당사는 이를 글로벌 제조업 회복의 초기 징후로 판단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IT에 집중되어 있던 성장이 여타 산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1)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하락의 혜택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2)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전략적 인내(일시적인 공급 충격에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로 글로벌 금융여건이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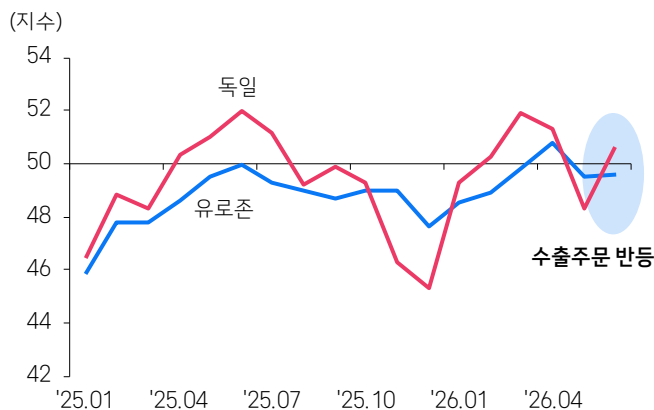
### 국제유가 하락이 성장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할 것

기본적으로 성장 궤도로의 복귀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을 의미한다("Global Reflation Redux", Week Ahead 1월 셋째 주, 1월 16일 발간 참조). 당사는 여전히 1월의 입장을 유지하나,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전쟁으로 높아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성장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한다. 5월 미국의 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1%를 기록한 가운데, 핵심물가도 3.4%를 기록했다. 특히, 핵심물가 중 서비스의 기여도는 전년 대비 2.3%를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1%를 기록했고, 에너지와 해외 관광 및 항공운임을 제외한 물가도 2.2%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 추세를 지속했다. 반면, 6월 들어 국제유가가 전월 대비 -15.8%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중 전반적인 물가 압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또한, 중국 내수의 부진도 글로벌 제조업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5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0.6%, 고정자산 투자(누적)으로 -4.1%를 기록했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 중국 정부의 반내권화 정책, 낮은 제조업 수익성, 지방정부 재정 여력 부족 등에서 비롯된다. 글로벌 제조업과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 내수의 부진은 글로벌 제조업 물가를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요인이다. 실제로 '22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수출 물가는 경쟁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DRAM, NAND 등 반도체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이다. 다만, 각국의 물가 바스켓을 감안할 때, 휴대폰, PC 등의 가격이 20%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0.1~0.3pts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당사는 최근의 반도체 가격 상승은 데이터 센터의 투자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보다는 생산자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AI의 미국 경제 영향 점검", 3월 12일 발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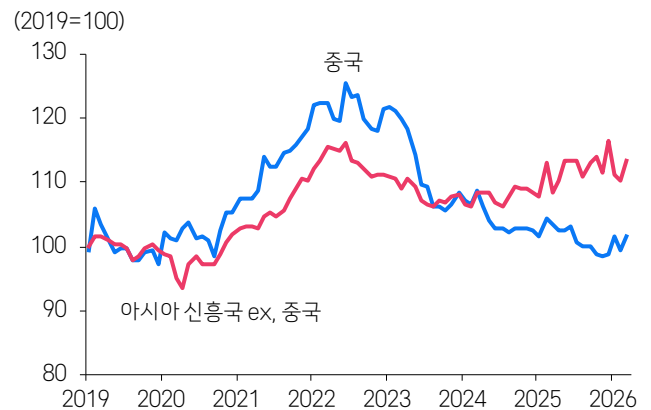
(정성태)

유로존과 독일 PMI의 수출주문 지수 6월 들어 반등



자료: S&P Global, 삼성증권

'22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수출물가 하락세 지속



자료: 네덜란드 CBP, 삼성증권

# Preview

##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6월 ISM 제조업 지수(1일)와 고용 동향(2일)이 발표 예정이다. 6월 ISM 제조업 지수는 53.6으로 전월(54.0)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6월 중순 이후 이란 사태 합의 도출과 이에 따른 유가 하락이 심화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지표 개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제조업 경기 전반에 걸쳐 하반기에도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2.5만명을 기록하여, 5월의 17.2만명에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여타 미국 고용 지표들을 감안할 때, 6월 신규 고용이 컨센서스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4.3%가 유지될 전망이고, 시간당 임금도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5%로 노동시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럽:** 다음 주에는 6월 유럽집행위 경제신뢰지수(29일)와 6월 소비자물가(7월 1일)가 발표될 예정이다. 6월 경제신뢰지수는 94.8을 기록해 5월(93.5) 대비 1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이후 미국-이란 간 협상 진전에 맞춰 유럽의 서베이 기반 데이터들은 V자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3Q 중 심리 지표 전반은 이란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1%를 기록해 5월(3.2%)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하락, 미국-이란 간 협상 진전으로 인해 유로존 투입 비용 및 공급 충격은 6월에 고점을 통과했다.

**중국:** 다음 주에는 6월 국가통계국 PMI와(30일) 6월 RatingDog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각각 7월 1일, 3일)가 발표될 예정이다.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는 5월과 비슷한 50.1로 전망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완화되었으나 중국 제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다른 주요 지역의 6월 제조업 PMI와 한국 6월 1~20일 수출도 기존 추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이에 RatingDog 제조업 PMI도 5월과 비슷한 51.9로 전망한다. 한편, 6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는 49.9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오절 연휴 소비 데이터는 전년 대비 3~4%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한, 중국 1선 도시 주택 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2선 도시 이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건설업 PMI는 재차 기준(50)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RatingDog 서비스업 PMI도 5월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다음 주에는 6월 수출(7월 1일)과 6월 소비자물가(2일)가 예정되어 있다. 6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63.0%로 예상한다(consensus는 60.7%). 60%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예상하는 이유는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월 계약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6월 1~20일까지는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소폭 (+)로 전환되었다. 당사는 이를 글로벌 제조업의 회복 징후라고 판단한다. 한편, 6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대비 3.2%로 예상한다(5월 각각 0.5%와 3.1%).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둔화를 전망하는 이유는 1)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소폭 하락, 2) 5월 연휴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승했던 해외 여행과 항공운임의 안정, 3) 작황의 개선에 따른 농작물 가격의 안정 등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미-이란 간 종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달러 초반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란 사태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당사는 월 평균 유가가 6월 83달러, 7월 75달러를 기록한 이후, 8월부터는 이란 사태 이전 수준인 60달러 중반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유지한다. 이 경우, 5월을 고점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headline을 기준으로 6월부터 전월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FOMC내 동결을 지지하는 Fed 지도부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제유가의 빠른 정상화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Fed의 추세적인 긴축 사이클로의 전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재차 85달러 이상으로 추세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한, 주요국들은 하반기 중 잠재 수준의 성장률 추세와 인플레이션의 하락 안정화가 진행되는 골디락스 국면에 재진입할 전망이다.

한편, 마이크론의 실적 및 향후 가이드언스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도 급락세에서 벗어나 재차 빠른 반등세로 전환되었다. 당사는 하반기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과 국내 증시 급등에 따른 wealth effect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되면서, 내수로의 온기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7월부터 내년 2Q까지 분기별 1회씩 총 4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terminal rate 3.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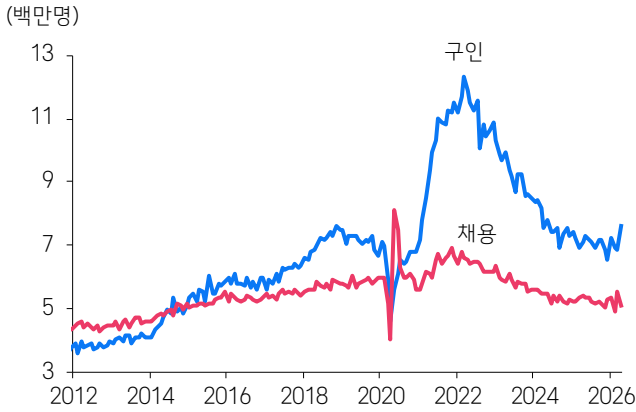
###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b>경제 지표</b>							
미국	6월 30일	5월 JOLTS 구인 건수	천 명	7,275.0	7,618.0	상	
	7월 1일	6월 ADP 고용	천 명	110.0	122.0	상	• 전월(17.2만명) 대비 신규 취업자 수 둔화 전망
		6월 ISM 제조업 지수	지수	53.6	54.0	상	• 이란 사태 합의 도출로 제조업황 회복 전망
	7월 2일	6월 비농업고용	천 명	125.0	172.0	상	
		6월 시간당 임금	전월 대비	0.3%	0.3%	상	
		6월 실업률	%	4.3%	4.3%	상	
유로존	6월 29일	6월 경제신뢰지수	지수	94.8	93.5	중	• 심리 지표 전반이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할 전망
	7월 1일	6월 CPI	전년 대비	3.1%	3.2%	상	• 전쟁 협상 및 유가 하락으로 소폭 둔화 전망
중국	6월 30일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전년 대비	50.1	50.0	상	• 호르무즈 개방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6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	전년 대비	49.9	50.1	상	• 가계 소비, 건설업 부진으로 기준 하회 예상
	7월 1일	6월 RatingDog 제조업 PMI	지수	51.9	51.8	상	
	7월 3일	6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	지수	-	54.4	상	
한국	7월 1일	6월 수출	전년 대비	60.7%	53.4%	상	• 반도체 수출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증가 전망
		6월 수입	전년 대비	24.5%	20.7%	상	
	7월 2일	6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3.2%	3.1%	상	• 유가 하락, 작황 개선 영향으로 상승률 둔화 전망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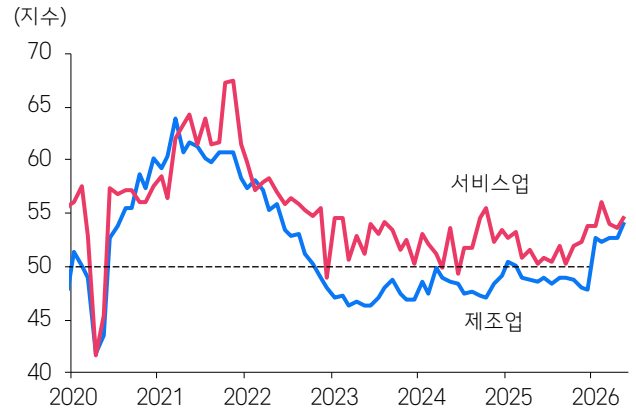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미국 JOLTS 구인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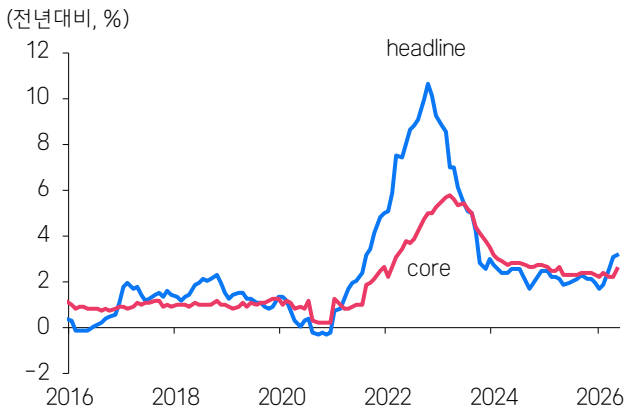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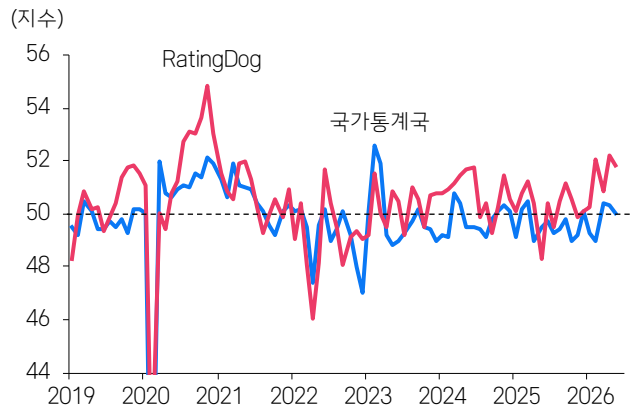
자료: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유로존 HICP: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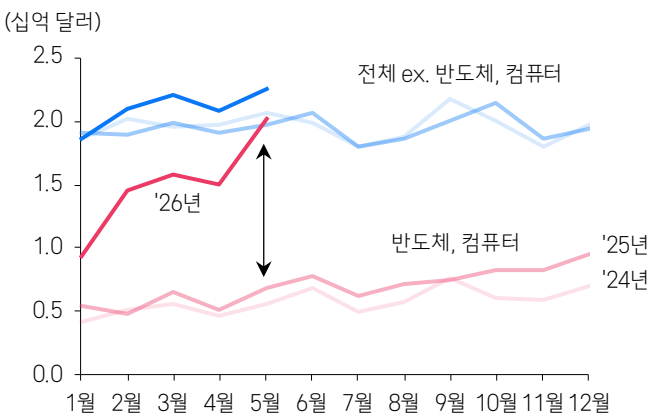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entral Bank

중국 제조업 PMI 추이: 국가통계국 vs. RatingD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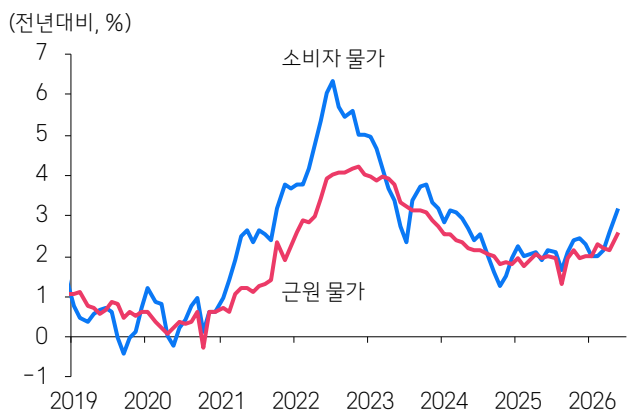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S&P Global

반도체와 컴퓨터가 대부분의 수출 증가를 설명



참고: 일평균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한국 소비자물가 추이: headline vs. core



자료: 통계청

# Review

##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에는 6월 S&P Global PMI(23일), 그리고 5월 PCE 물가지수(25일)가 발표되었다. 6월 S&P Global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는 각각 55.7과 51.3으로 시장예상(각각 54.6, 51.1, 이하 모두 Bloomberg)을 일제히 상회했다. 그에 따라 6월 종합 PMI는 52.2로 전월(52.1) 대비 추가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미국 업황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부 지수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투입비용 지수가 71.2로 전월(75.3) 대비 하락한 가운데 판매가격 지수도 5월 63.1→61.0으로 낮아졌다. 반면, 신규주문 지수의 경우, 제조업 신규주문이 57.5로 전월(55.1)대비 추가 상승한 가운데, 서비스업 신규주문도 48.1로 여전히 기준선(50)은 하회하나 전월(44.2) 대비 개선되었다.

5월 headline 및 core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0.3%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각각 4.1%와 3.4% 상승하면서 전월(각각 3.8%, 3.3%)보다 높아진 물가 압력을 확인시켜주었다. 다만, 미-이란 종전 합의 이후 5월 평균 98달러에 달했던 WTI 기준 유가가 6월 평균 80달러 초반까지 빠르게 하락하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4.5% 아래로 하락 안정세 전환한 상황으로, 당사는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 효과 소멸로 4Q부터 인플레이션 정상화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 미국 headline과 core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약 -0.8~-1.0%pts 급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 이번 주에는 6월 유로존 PMI(23일)가 발표되었다. 6월 종합 PMI는 49.5를 기록해 5월(48.5) 및 컨센서스(49.2)를 상회했다. 2분기 PMI 평균은 48.9를 기록했는데, 이는 2Q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전기대비 0%를 하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내용 중 주목할 것은 투입 비용 지수가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6월 투입 비용지수는 64.7을 기록해 5월(69.9) 대비 크게 하락했다. 공급 충격 해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9~10월 중 정점을 통과한 뒤 둔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사 ECB 기본 전망은 9월 인상 후 동결이나, 금리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이번 주에는 6월 LPR(22일)이 발표되었다. 1년과 5년 만기 LPR은 각각 3.0%와 3.5%를 유지하면서 당사 및 시장의 예상(Bloomberg 기준)에 부합했다. 이로써 LPR은 1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당사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내수 부진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인민은행이 '27년말까지 정책금리(7일 역RP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라 LPR도 당분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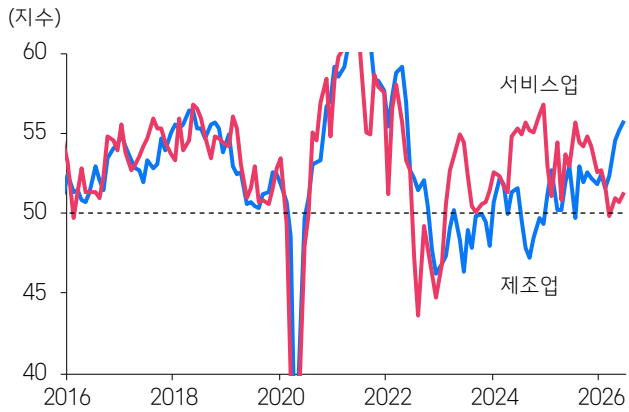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고
<b>경제 지표</b>								
미국	6월 23일	6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54.6	55.7	55.1	Above	• 제조업 중심의 확장 국면 지속 시사
		6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51.1	51.3	50.7	Above	
	6월 24일	5월 신규주택매매	전월 대비	3.2%	-7.3%	-5.7%	Below	
	6월 25일	5월 개인소득	전월 대비	0.4%	0.7%	0.0%	Above	
		5월 개인소비	전월 대비	0.6%	0.7%	0.4%	Above	
		5월 PCE 물가	전월 대비	0.5%	0.4%	0.4%	Below	• 유가 및 금리 하락으로 물가 안정 가속화
		5월 핵심 PCE 물가	전월 대비	0.3%	0.3%	0.3%	In-line	
		5월 내구재주문	전월 대비	-5.0%	-4.5%	8.5%	Above	
		5월 자본재주문	전월 대비	0.6%	1.6%	-0.7%	Above	
	유로존	6월 22일	6월 소비자 신뢰지수	지수	-18.0	-17.7	-19.0	Above
6월 23일		6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51.6	51.3	51.6	Below	•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투입 비용 하락
		6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48.6	48.9	47.7	Above	
독일	6월 24일	6월 IFO 경영환경지수	지수	85.5	85.6	85.0	Above	
중국	6월 22일	6월 1년 만기 LPR	전월 대비	3.0%	3.0%	3.0%	In-line	• 13개월 연속 동일 수준 유지
		6월 5년 만기 LPR	전월 대비	3.5%	3.5%	3.5%	In-line	
일본	6월 26일	6월 도쿄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6%	-	1.4%	-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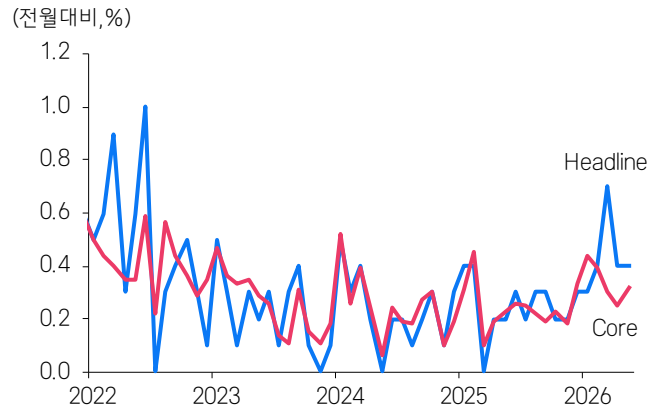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S&P Global 미국 PMI: 제조업 vs.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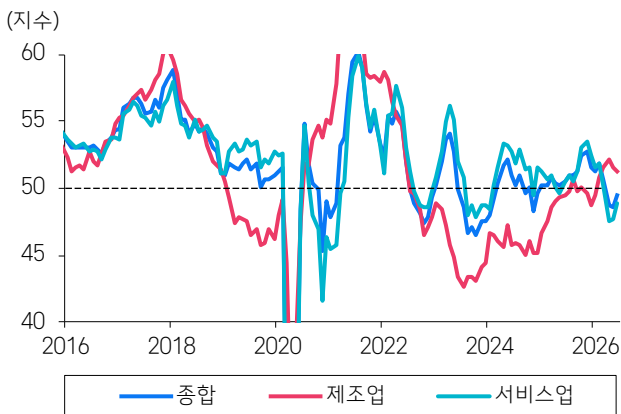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미국 PCE: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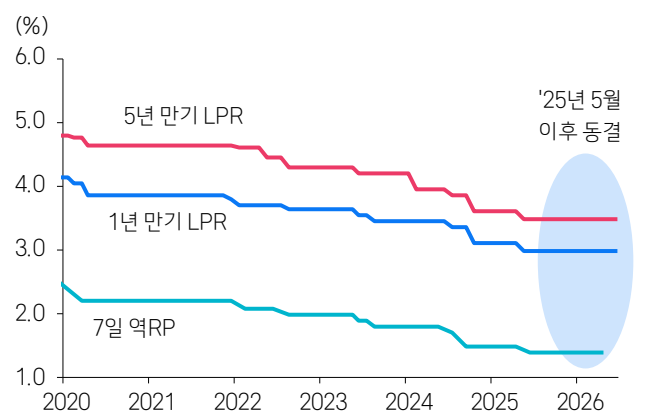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S&P Global 유로존 PMI: 제조업 vs.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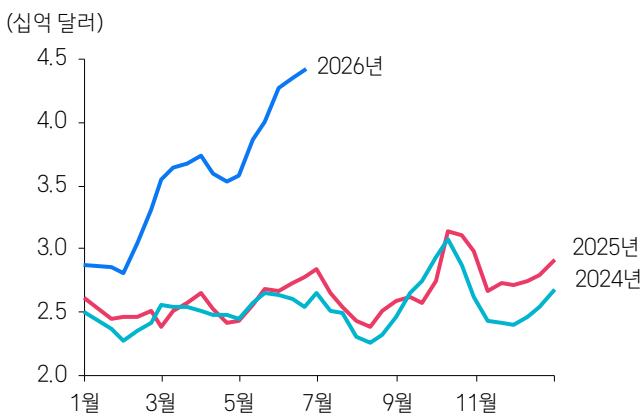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중국 LPR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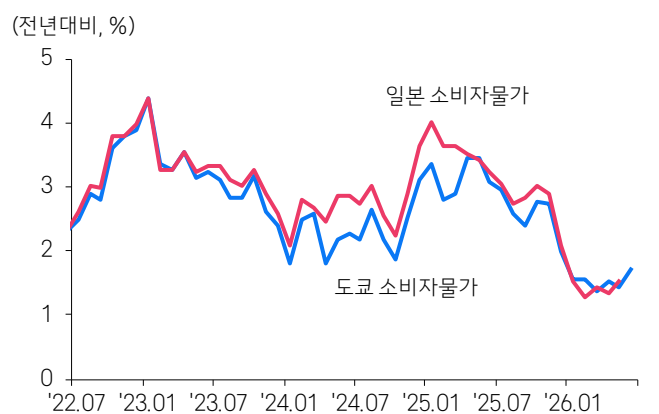
자료: 중국 인민은행, NIFC

한국 일평균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일본 전체 물가를 선행하는 도쿄 소비자물가



자료: 일본 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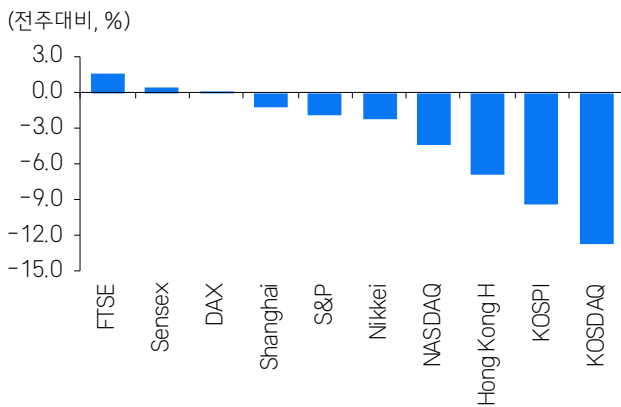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6월 26일 13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락했다. 한국 증시는 메모리 수요 위축 우려와 반도체 대형주 차익실현 매물이 맞물리며 급락했다. 26일에는 올해 네 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3거래일 만에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 증시는 메모리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1.9%, -4.4%를 기록했다. 유럽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급락했으나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며 유로스톡스50은 -0.4%의 약보합을 기록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100.8에서 101.5로 상승했다. 지난주 6월 FOMC 이후 Fed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시장 기대감이 높게 유지되면서 달러를 지지했다. 6월 FOMC가 hawkish했던 배경은 dot-plot에서 연내 금리 인상 의견이 9명으로 연내 동결 및 인하 의견(8명, 1명)과 동수를 이루고, 6월 경제전망(SEP)에서도 올해 4Q headline과 core PCE 인플레이션 전망이 각각 3.6%와 3.3%(기존 각각 2.7%)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주 발표된 6월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을 큰 폭을 상회하고 5월 core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4%로 전월(3.3%) 대비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인 점도 달러 하방을 지지했다. 이번 주 달러 대비 엔화와 파운드가 -0.3%, 위안화 -0.5%, 유로화 -0.9%, 원화는 -1.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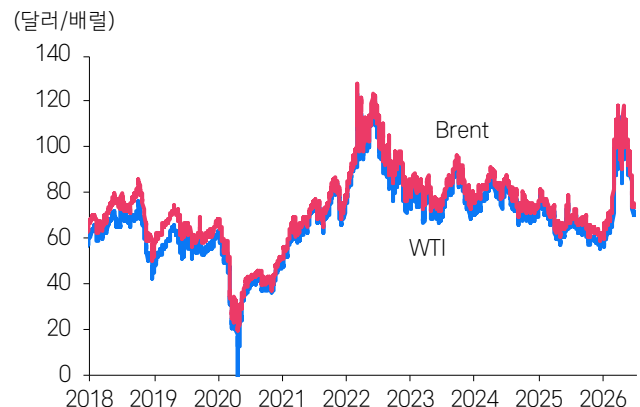
**원자재:** 이번 주 WTI는 \$76.6에서 \$70.7로, 브렌트는 \$80.6에서 \$74.0으로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결과다. 양국은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가능성도 부각됐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전쟁 이후 저점으로부터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공급 불안이 완화되었다.

###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6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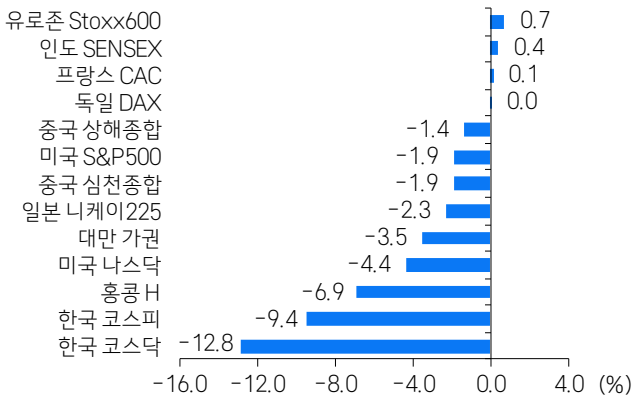
###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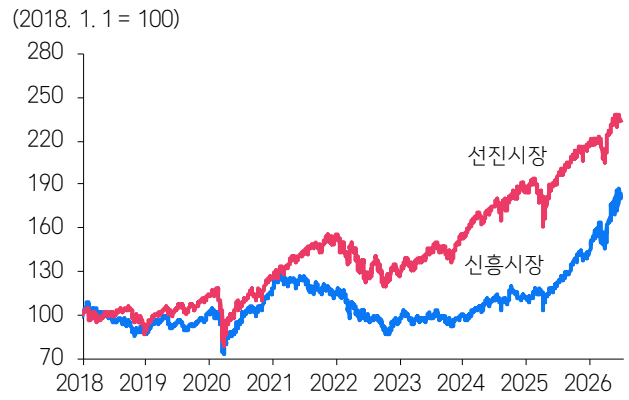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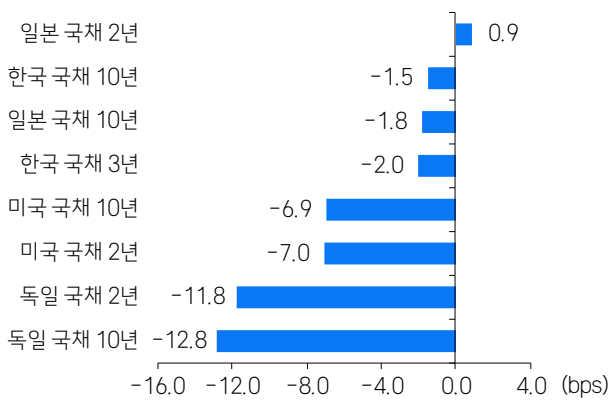
참고: 6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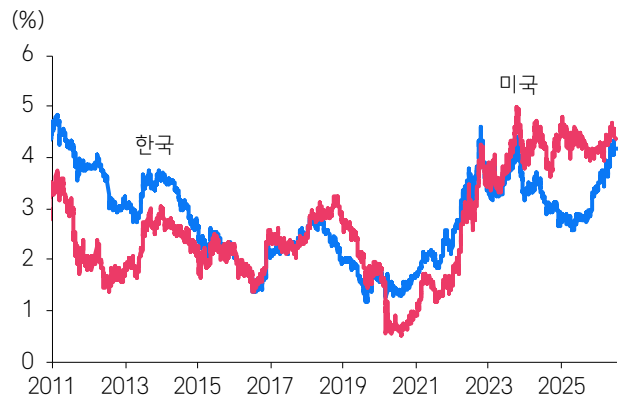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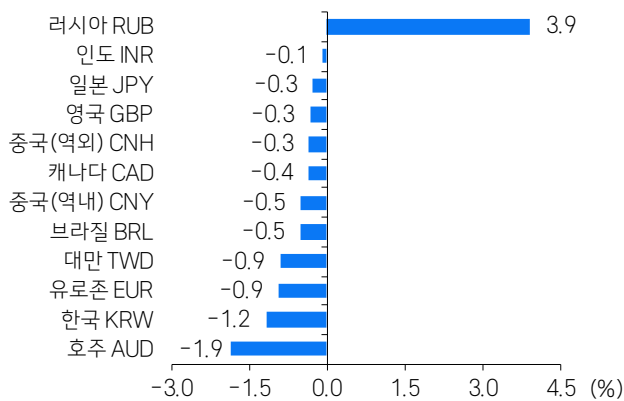
참고: 6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6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변화 내용
				3개월	1년	
<b>주요국</b>						
미국	3.50~3.75	3.75~4.00	25.12.10	0	(75)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6월 FOMC에서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 결정됨.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연내 금리 인상 의견이 9명(3개월전 0명)으로 대폭 증가해, 연내 동결 및 인하 의견 9명과 동수를 이룬 것. 이는 이번 인플레이션 상승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 Fed는 올해 4Q headline과 core PCE 물가 전망을 각각 3.6%와 3.3%(기존 2.7%씩)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반면, '27년 4Q 전망치는 2.3%와 2.5%(기존 2.2%씩)로 소폭 상향에 그쳐, 내년 중 물가 정상화 전망이 여전히 FOMC내 컨센서스임을 시사
유로존	2.25	2.00	26.06.11	25	25	ECB,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했으며, 유로존 성장 전망은 하향하고 물가 전망은 상향. ECB가 금리 인상으로 전환한 것은 가격 상승이 에너지에만 그치지 않고, 에너지 외 부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리 정해진 금리 경로는 없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소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한국	2.50	2.75	25.05.29	0	0	한국은행, 5월 금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통방문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신현승 총재는 기자회견담회에서 금리 인상 방향을 시사했으나 terminal rate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힘
일본	1.00	0.75	26.06.16	25	50	일본은행,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1.00%로 인상하되 국제 매입 축소는 중단함. 우에다 총재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물가의 선순환이 강화되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기자 회견에서 우치다 부총재도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은 2%를 향해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나, 2%를 상회할 수 있는 리스크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영국	3.75	4.00	25.12.18	0	(50)	BOE,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중앙은행은 이전 회의 후 CPI 상승률이 2.8%로 하락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내 물가 반등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향후 물가 전망 불확실성을 동결 이유로 언급
중국	1.40	1.50	25.05.08	0	0	중국 인민은행은 3월 양회에서 "적절히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또한, 정책 금리 및 기준을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힘. 다만, "사회의 종합적인 용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문구를 "...용자 비용을 낮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변경
<b>기타 지역</b>						
멕시코	6.50	6.75	26.05.07	(25)	(150)	멕시코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밝힌 지난 5월 회의 이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면서, 예상대로 '27년 2분기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3%에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인도	5.25	5.50	25.12.05	0	(25)	인도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서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성장과 물가 모두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며, 앞으로 성장, 인플레이션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성 언급
브라질	14.25	14.50	26.06.17	(50)	(75)	브라질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하고 있으나, 1분기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이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튀르키예	37.00	38.00	26.01.22	0	(900)	튀르키예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안정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지정학적 상황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가상승률 5%를 달성하는 게 최우선임을 밝힘
인도네시아	5.75	5.50	26.06.18	100	2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상. 중앙은행 총재는 루피아화 약세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제한하기 위한 결정을 밝힘
호주	4.35	4.10	26.05.05	25	50	호주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올해 총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 및 유가 하락의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스웨덴	1.75	2.00	25.10.01	0	(25)	스웨덴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공급 차질 지속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및 '27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스위스	0.00	0.25	25.06.19	0	0	스위스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중동 분쟁으로 인해 원자재 및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지 않았으며 1분기 GDP 역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
러시아	14.25	14.50	26.06.19	(75)	(575)	러시아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단행. 중앙은행 측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따른 연료 생산량 감소와 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고려해 인하폭을 축소했다고 밝힘
뉴질랜드	2.25	2.50	25.11.26	0	(100)	뉴질랜드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의견차가 존재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향후 금리 인상을 신속하고 큰 폭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힘
캐나다	2.25	2.50	25.10.29	0	(50)	캐나다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중동 분쟁 지속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결정임을 밝힘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6월 19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변화율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b>주식시장 (지수)</b>														
KOSPI	9,052	9,115	8,204	8,471	8,930	8,200	(9.4)	1.9	50.2	98.6	166.3	193.7	217.6	94.6
미국 S&P 500	7,501	7,473	7,365	7,358	7,357	7,357	(1.9)	(2.1)	13.6	6.2	19.8	34.3	70.0	7.5
일본 NIKKEI 225	71,250	72,354	69,788	69,175	72,366	69,603	(2.3)	7.1	29.8	37.1	75.8	75.5	112.9	38.3
영국 FTSE	10,363	10,438	10,429	10,462	10,530	10,530	1.6	0.4	5.6	6.7	20.5	28.0	41.3	6.0
독일 DAX	24,986	25,140	24,894	24,740	24,995	24,995	0.0	(0.8)	10.5	2.7	5.7	37.7	58.1	2.1
중국 상해종합	4,090	4,163	4,106	4,111	4,120	4,018	(1.8)	(3.1)	3.3	1.4	16.5	35.2	27.5	1.2
홍콩 H	7,976	7,915	7,759	7,765	7,608	7,423	(6.9)	(13.4)	(11.5)	(16.7)	(15.7)	14.6	16.5	(16.7)
인도 Sensex	76,803	77,094	76,201	76,991	77,100	77,100	0.4	1.4	2.4	(9.3)	(7.9)	(2.0)	22.4	(9.5)
인도네시아 JCI	6,177	6,117	6,101	5,884	5,999	5,861	(5.1)	(4.4)	(18.2)	(31.4)	(15.0)	(15.1)	(12.1)	(32.2)
브라질 iBovespa	168,334	170,370	171,259	170,507	171,990	171,990	2.2	(2.6)	(5.9)	6.9	25.4	40.2	45.5	6.7
MSCI World (USD)	4,828	4,822	4,753	4,744	4,754	4,754	(1.5)	(1.6)	12.1	6.3	19.3	35.0	64.2	7.3
MSCI EM (USD)	1,786	1,803	1,734	1,730	1,756	1,756	(1.7)	2.1	21.2	25.7	43.1	61.7	77.5	25.0
<b>채권금리 (%)</b>														
한국 국채 3년	3.78	3.81	3.77	3.78	3.76	3.76	(2)	10	22	80	131	55	19	81
한국 국채 10년	4.17	4.19	4.16	4.17	4.16	4.16	(1)	8	31	78	138	88	55	77
미국 국채 2년	4.18	4.23	4.20	4.15	4.12	4.10	(8)	7	11	62	38	(65)	(64)	63
미국 국채 10년	4.45	4.51	4.50	4.39	4.39	4.38	(8)	(11)	(4)	25	13	5	66	21
일본 국채 10년	2.66	2.68	2.68	2.68	2.63	2.61	(4)	(11)	33	57	119	158	225	55
독일 국채 10년	2.99	2.95	2.92	2.87	2.86	2.86	(13)	(12)	(22)	(0)	29	41	55	0
중국 국채 10년	1.73	1.73	1.74	1.74	1.73	1.73	(1)	(2)	(9)	(11)	8	(50)	(94)	(13)
인도 국채 10년	6.88	6.87	6.87	6.80	6.77	6.77	(12)	(23)	(11)	21	49	(23)	(30)	19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7.08	7.11	7.18	7.22	7.18	7.18	11	48	33	104	53	7	89	111
브라질 국채 10년	14.78	14.57	14.48	14.27	14.42	14.42	(36)	29	15	60	55	235	355	69
JPM EMBI Global	211.8	211.0	214.7	219.3	219.5	219.5	8	(2)	(24)	(15)	(79)	(108)	(150)	(12)
<b>장단기 금리차 (%)</b>														
미국 국채 10년-2년	0.28	0.28	0.30	0.25	0.27	0.28	(0)	(18)	(15)	(37)	(25)	69	130	(42)
일본 국채 10년-2년	1.25	1.27	1.26	1.25	1.22	1.20	(4)	(11)	27	27	52	49	77	32
독일 국채 10년-2년	0.34	0.35	0.34	0.32	0.33	0.33	(1)	(6)	(3)	(39)	(42)	70	111	(40)
중국 국채 10년-2년	0.45	0.47	0.47	0.46	0.42	0.44	(1)	(1)	(4)	1	20	5	6	(1)
한국 국채 10년-3년	0.39	0.39	0.40	0.40	0.39	0.39	1	(2)	9	(3)	7	33	36	(4)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6월 19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b>CDS Premium (bps)</b>														
미국 (5년)	42.5	42.4	42.4	42.5	42.5	42.5	(0)	(0)	0	12	(2)	3	11	13
일본 (5년)	16.6	16.6	16.7	16.6	16.6	16.6	0	0	(0)	1	4	3	6	2
독일 (5년)	22.1	21.6	22.7	22.6	22.6	22.6	0	1	(11)	1	(5)	(13)	(12)	1
중국 (5년)	4.0	4.0	3.5	3.5	3.5	3.5	(0)	(0)	(0)	(1)	(2)	(3)	(7)	0
한국 (5년)	38.6	38.0	38.3	38.1	38.1	38.1	(0)	(2)	(12)	(6)	(13)	(30)	(23)	(6)
인도네시아 (5년)	86.6	87.5	90.1	90.5	90.5	90.5	4	(1)	(10)	21	12	12	(0)	22
브라질 (5년)	124.7	124.9	126.6	127.5	127.5	127.5	3	8	(6)	(10)	(25)	(37)	(50)	(11)
멕시코 (5년)	83.5	84.2	85.5	86.4	86.4	86.4	3	(1)	(21)	(4)	(20)	(26)	(19)	(4)
<b>상품가격</b>														
CRB지수	362.1	359.6	355.3	350.0	356.1	356.1	(1.7)	(8.3)	(1.6)	18.5	19.4	22.2	35.2	19.2
WTI (달러/배럴)	76.6	74.8	73.2	70.3	71.9	70.7	(7.7)	(24.7)	(25.2)	24.6	8.3	(12.6)	1.9	23.1
두바이유 (달러/배럴)	81.3	80.4	80.2	79.5	79.7	79.7	(2.0)	(22.3)	(38.7)	28.8	15.2	(3.4)	6.3	28.4
LME 구리 (달러/톤)	13,595	13,649	13,371	13,087	13,270	13,270	(2.4)	(2.6)	9.2	9.1	34.0	39.1	58.1	6.8
금 (달러/oz)	4,156	4,190	4,117	3,999	4,027	3,996	(3.8)	(11.3)	(8.7)	(11.8)	20.1	73.9	107.8	(7.5)
은 (달러/oz)	64.90	65.09	61.58	57.42	57.86	56.36	(13.2)	(26.7)	(17.2)	(28.9)	53.8	95.9	147.3	(21.3)
옥수수 (센트/부셸)	417.5	411.5	409.8	407.0	414.8	414.3	(0.8)	(9.5)	(11.3)	(7.9)	1.2	(1.4)	(35.0)	(5.9)
소맥 (센트/부셸)	605.8	597.5	586.8	585.8	591.0	586.3	(3.2)	(7.7)	(3.1)	13.0	12.5	8.3	(19.1)	15.6
<b>달러화 대비 환율</b>														
한국 원화	1,531	1,537	1,534	1,542	1,543	1,549	(1.2)	(2.7)	(2.7)	(6.9)	(12.6)	(10.3)	(15.7)	(7.0)
일본 엔화	161.30	161.57	161.55	161.78	161.79	161.71	(0.3)	(1.5)	(1.2)	(3.2)	(10.7)	(0.6)	(11.3)	(3.1)
유로화	1.147	1.143	1.138	1.136	1.137	1.136	(0.9)	(2.3)	(1.4)	(3.5)	(2.9)	6.4	4.2	(3.3)
중국 위안화 (역내)	6.768	6.776	6.792	6.811	6.798	6.804	(0.5)	(0.3)	1.6	3.0	5.4	6.8	6.4	2.7
중국 위안화 (역외)	6.784	6.778	6.795	6.813	6.802	6.808	(0.4)	(0.3)	1.6	2.9	5.2	7.2	6.4	2.5
인도 루피화	94.33	94.68	94.74	94.66	94.40	94.40	(0.1)	1.4	(0.5)	(4.8)	(9.2)	(11.5)	(13.1)	(4.7)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7,790	17,832	17,845	17,943	17,925	17,977	(1.0)	(1.0)	(6.0)	(6.8)	(9.9)	(8.7)	(16.5)	(7.2)
브라질 헤알화	5.151	5.142	5.181	5.195	5.177	5.177	(0.5)	(2.8)	1.2	7.1	6.0	6.6	(7.9)	5.7
달러 인덱스	100.85	101.02	101.41	101.61	101.43	101.49	0.6	2.3	1.6	3.5	4.5	(4.3)	(1.2)	3.2
아시아 달러 인덱스	91.9	91.7	91.6	91.3	91.5	91.3	(0.6)	(0.8)	(0.1)	(1.0)	(1.8)	1.5	(0.5)	(1.0)
JPM 이머징 통화지수	47.22	47.10	46.81	46.78	46.76	46.76	(1.0)	(1.7)	1.6	0.6	1.3	2.1	(5.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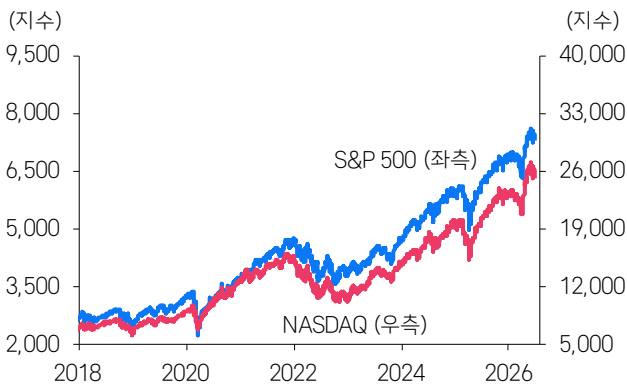
참고: 6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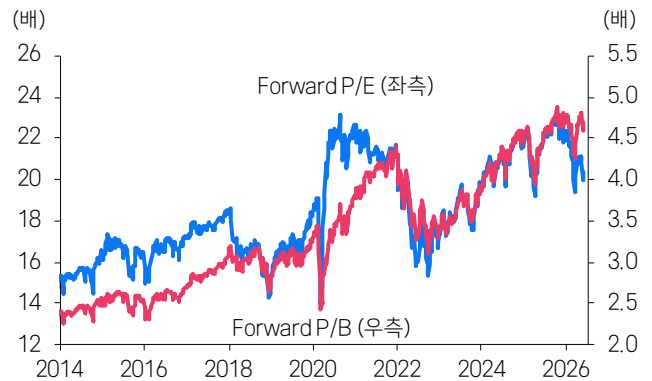
##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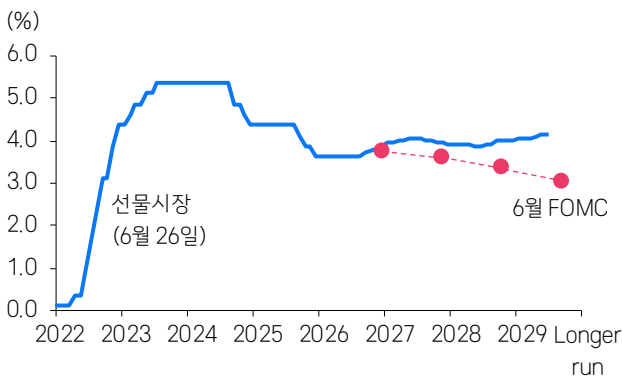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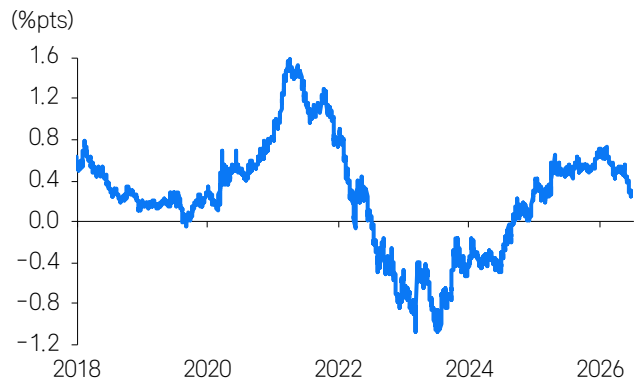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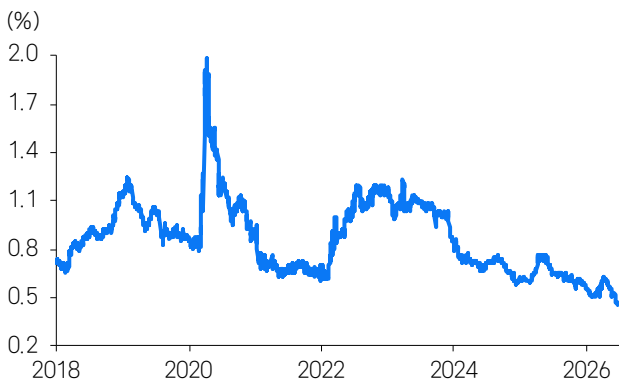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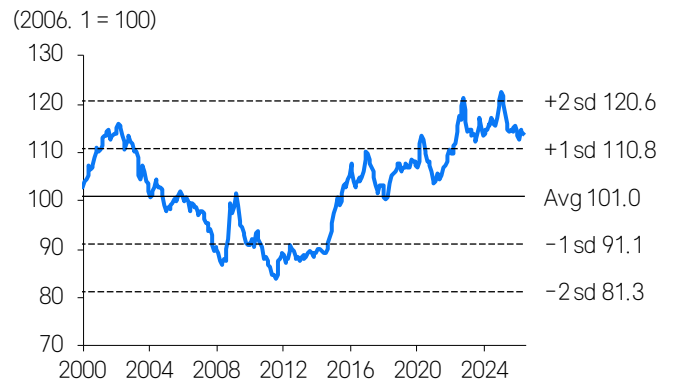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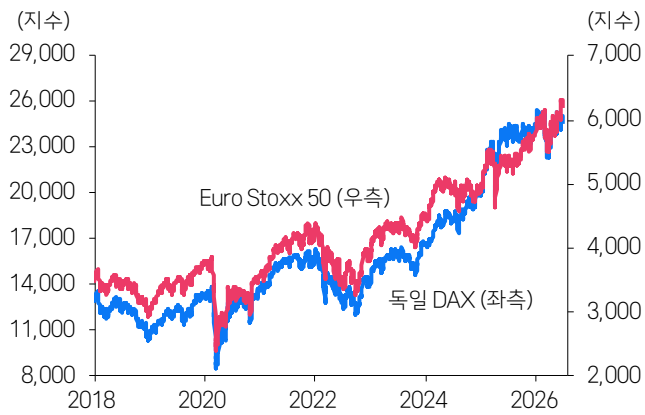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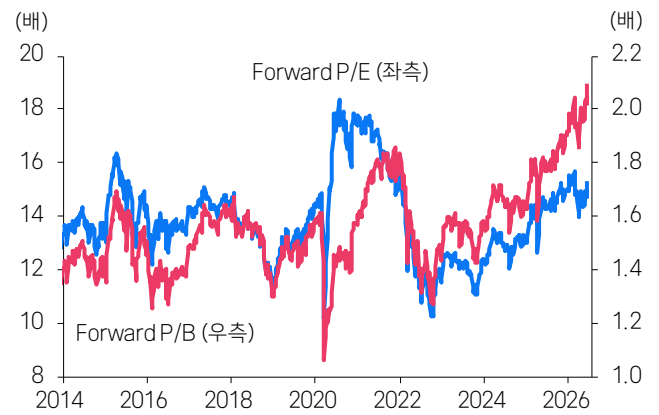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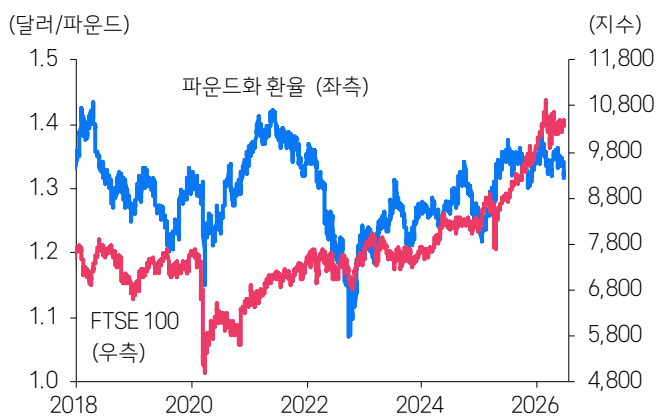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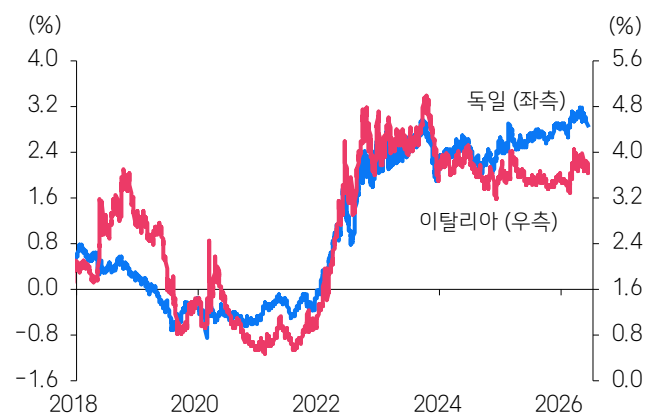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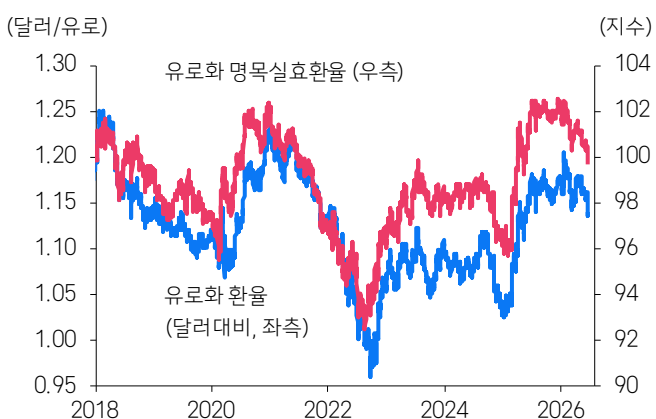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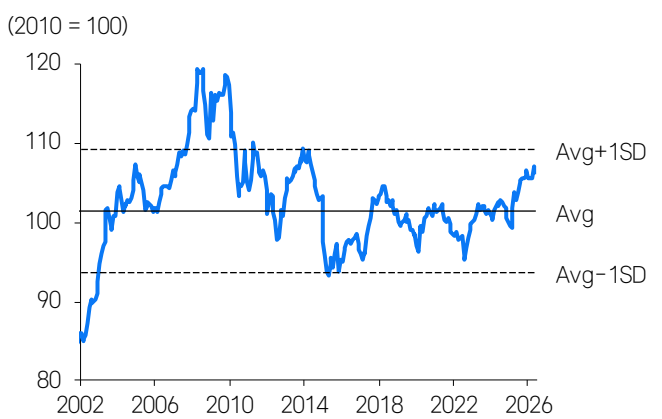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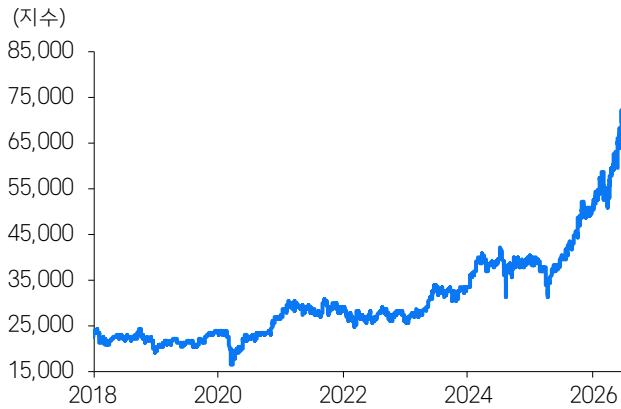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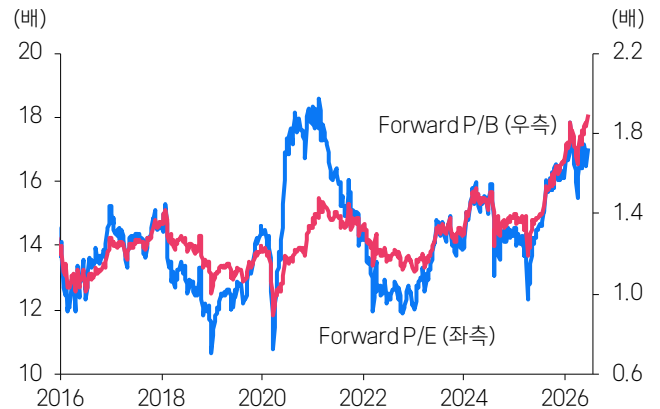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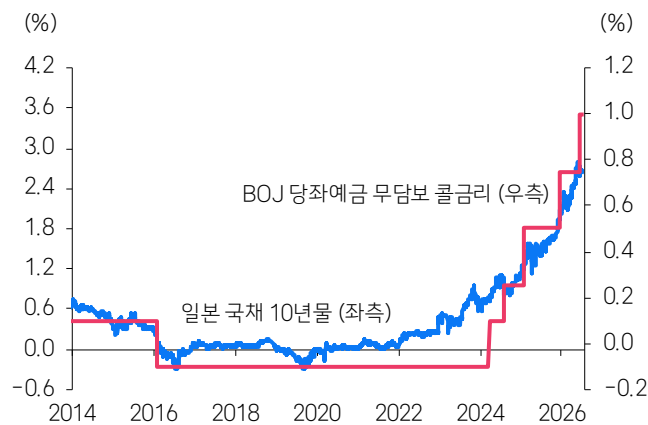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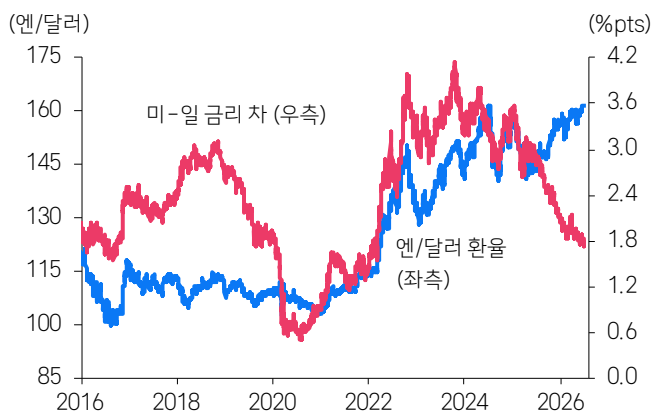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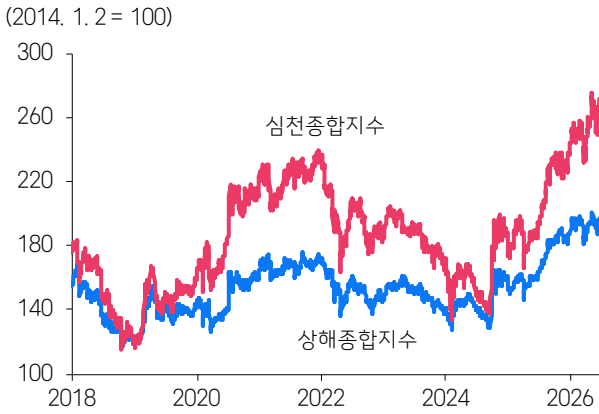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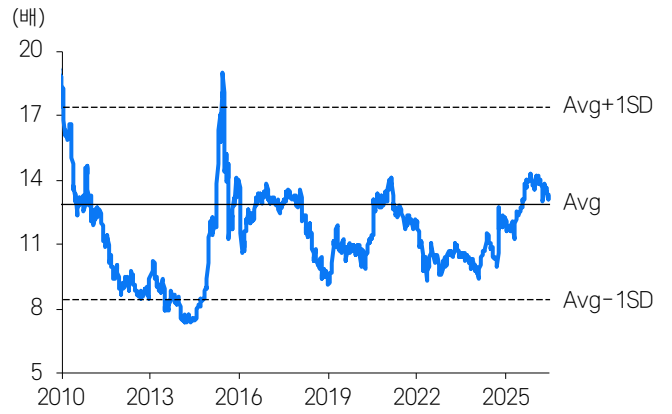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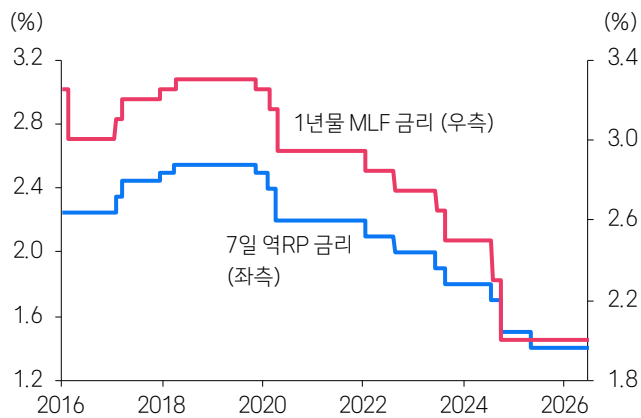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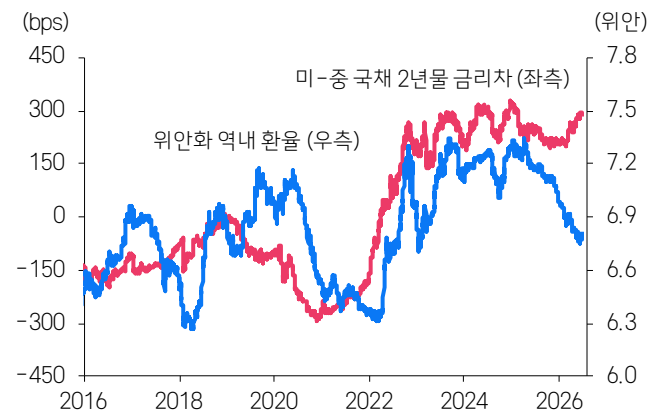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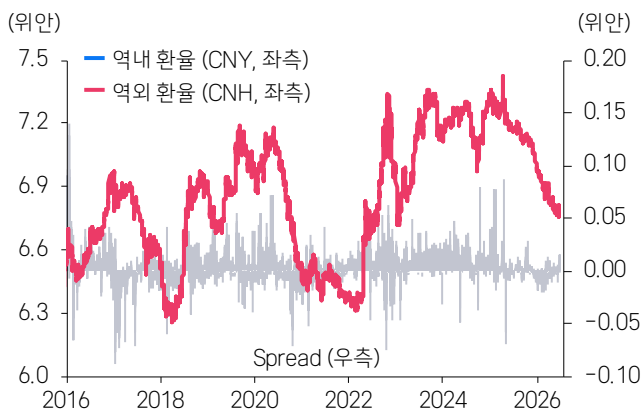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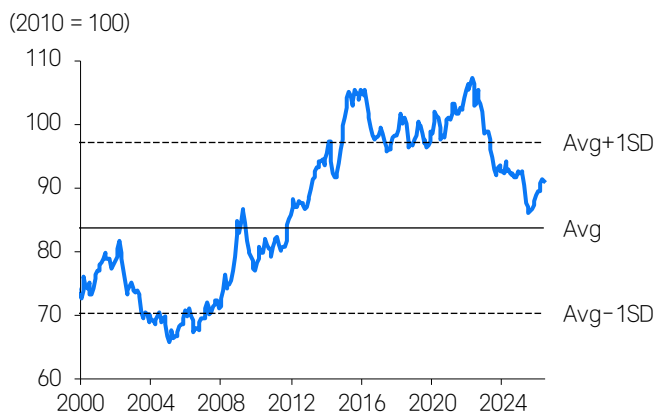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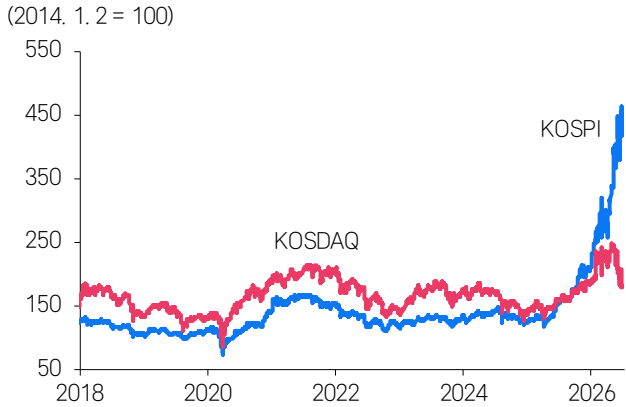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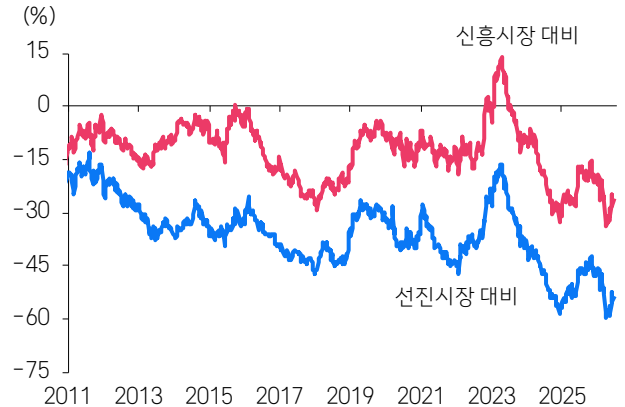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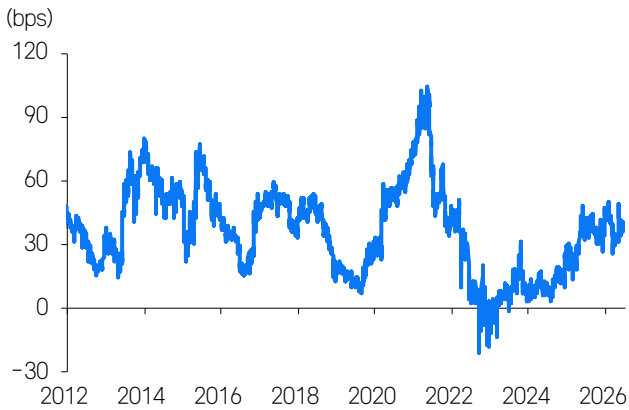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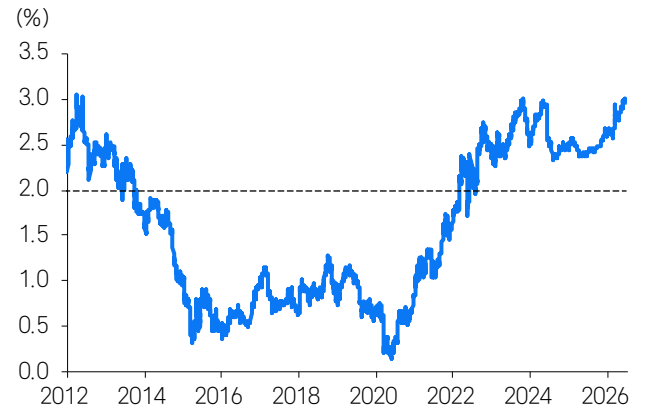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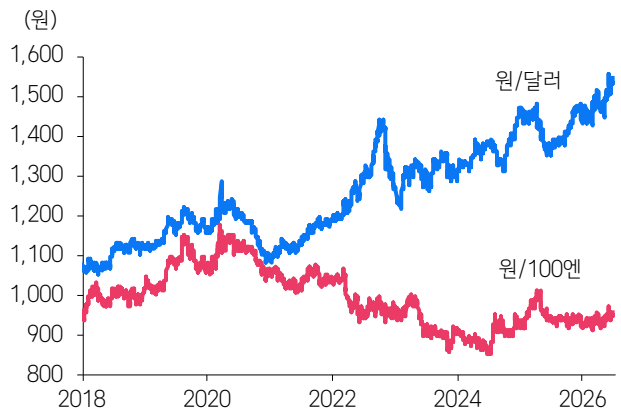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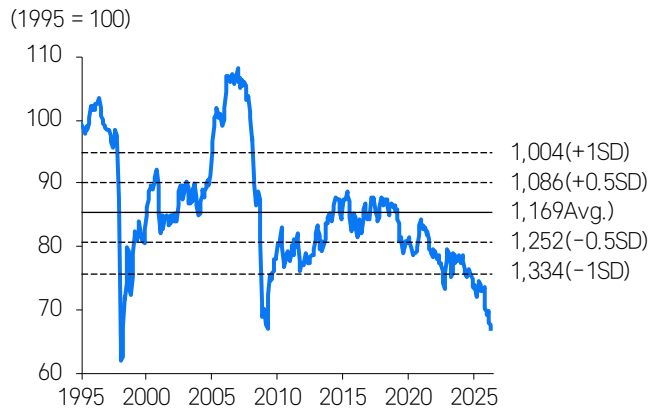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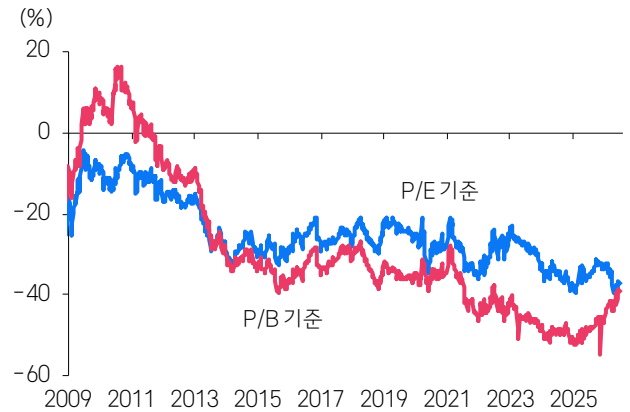
>> **신흥국**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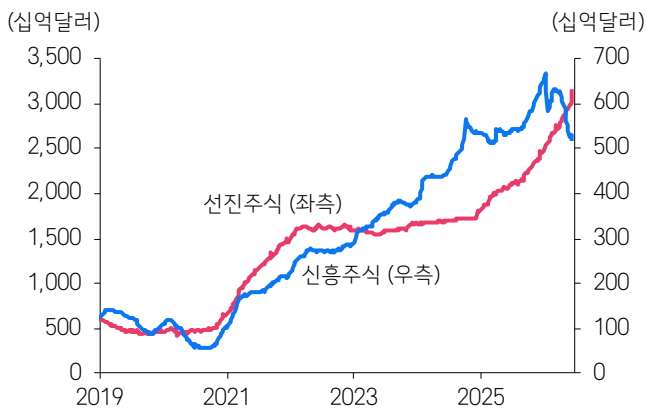
참고: MSCI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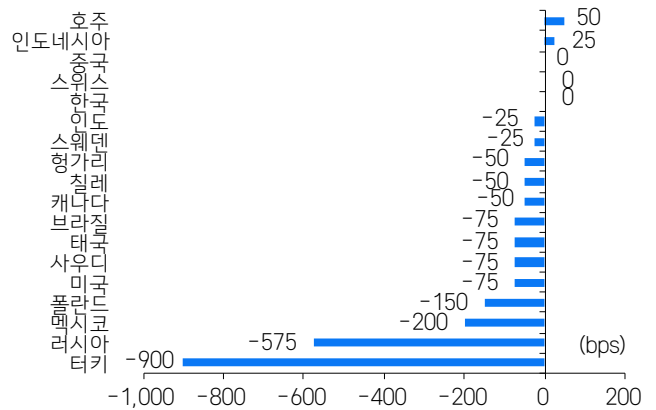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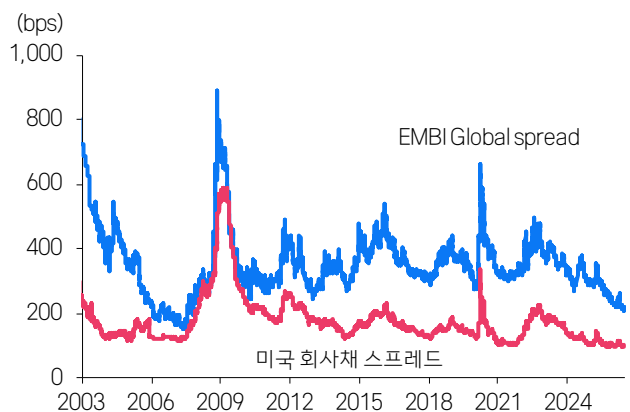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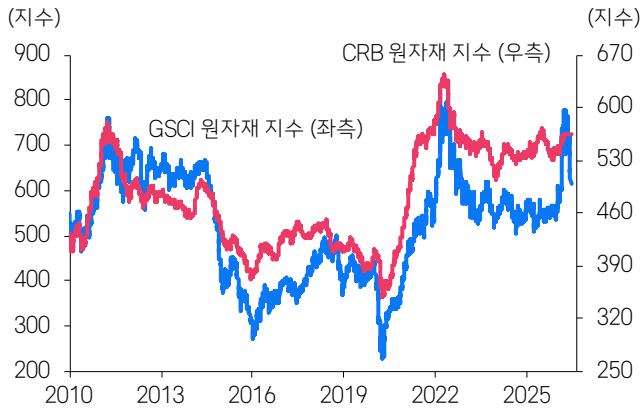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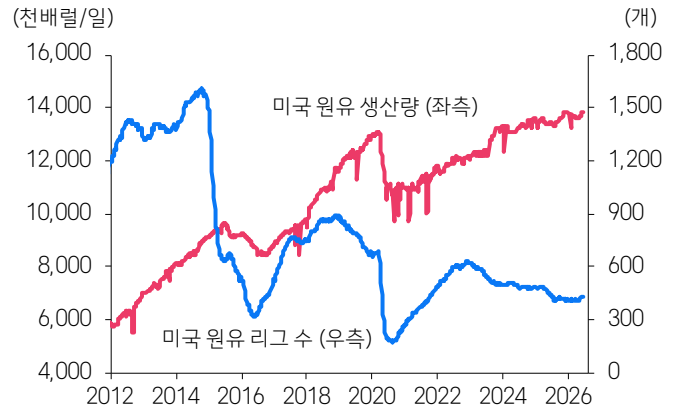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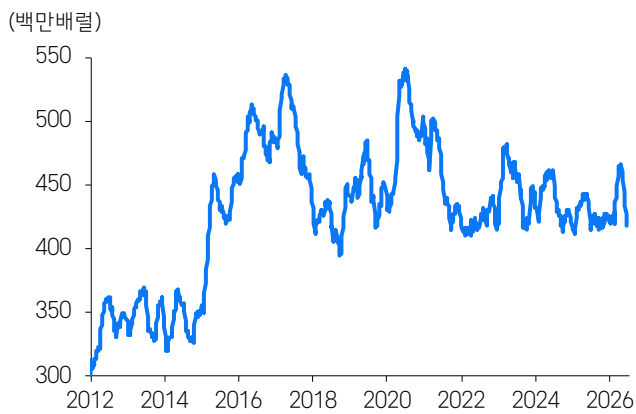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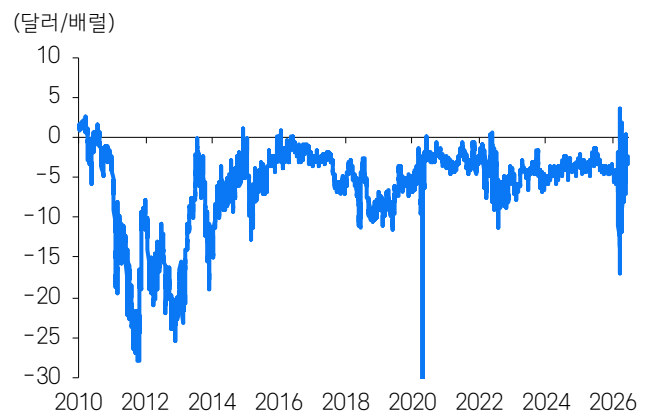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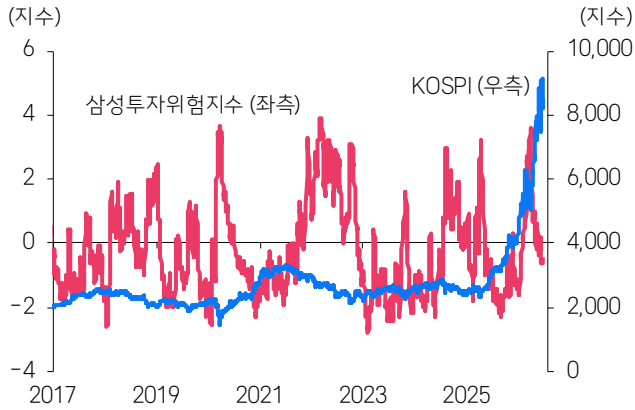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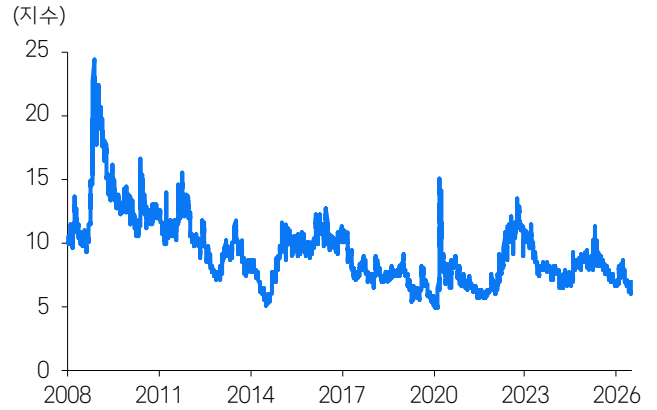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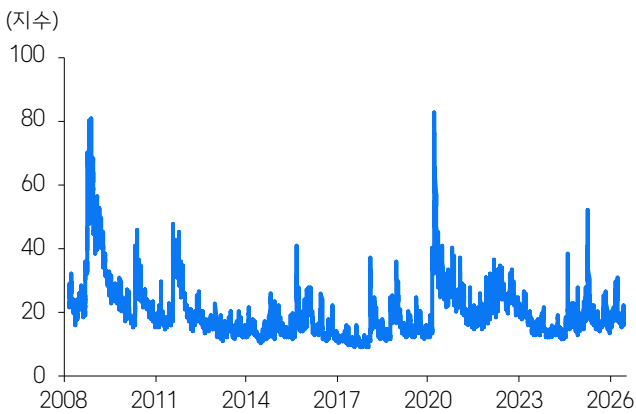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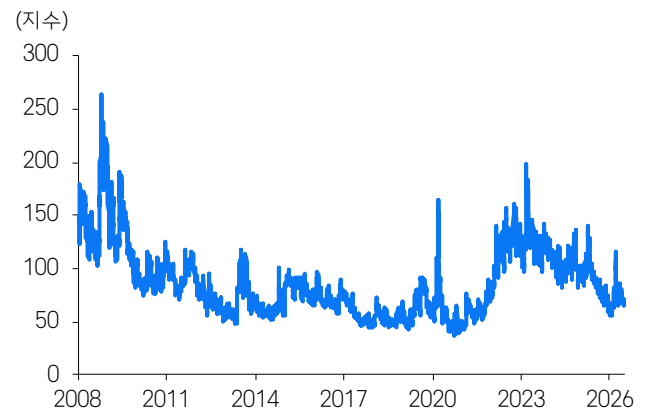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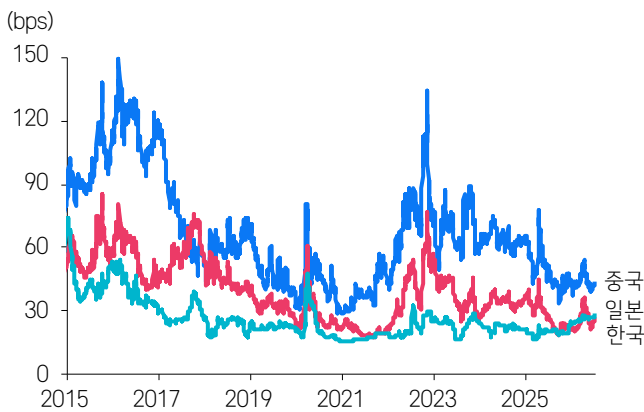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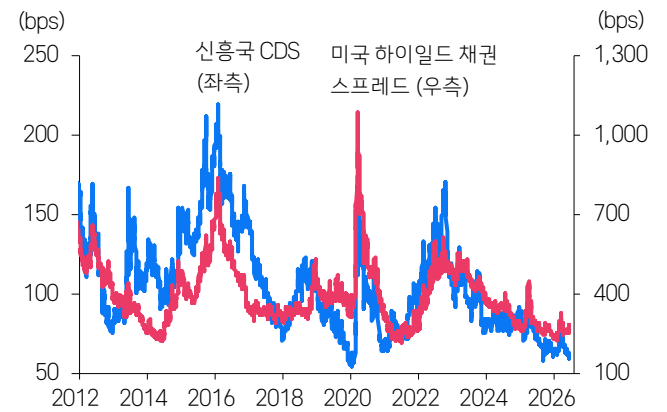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 삼성증권

###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